

드라마와 함께
하는
한국어 수업
제4강





금등지사(金騰之詞) : 아들 사도세자에 대한 회한의 정을 담은 영조의 친서

정조 : 금등지사라..

정조 : 선왕의 유지를 흠친 자는 무도한 신하요,
피 묻은 진실을 외면하는 이는 비겁한 군왕이라.

이정무 : ..

병판 : ..

정조 : 경들은 혹.. **금등지사**를 아시오?

병판 : 저언하!! 그 무슨!!



일강(日講) : 성균관에서 수업 뒤 매일 보던 시험

해원 : 구했소? 다들?

도현 : 뭘 말이나.

해원 : 족보 말입니다. 족보..

우탁 :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을
일궈온 경주 김씨 가문 38대 손으로..

해원 : 그 족보 말고 오늘 **일강** 족보 말일세.



혼돈주(混沌酒) : 오늘날의 폭탄주

도현 : **혼돈주** 제조의 달인 안도현의 필살기!
진도 홍주. 받으시오. 받으시오~~



결자해지 (結者解之) :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,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을 비유

윤희 : 사형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.
언젠가.. 꼭 보은 하겠습니다. 사형~!!

용하 : 보은이랄 것 까지야.., 신방례 일도 있고 하니.. 뭐
결자해지 째름 으로 해 두지.

윤희 : **결자해지** 요?

용하 : 그런게 있네.

결자해지

結者解之

맺을 결 / 놔자 / 풀해 / 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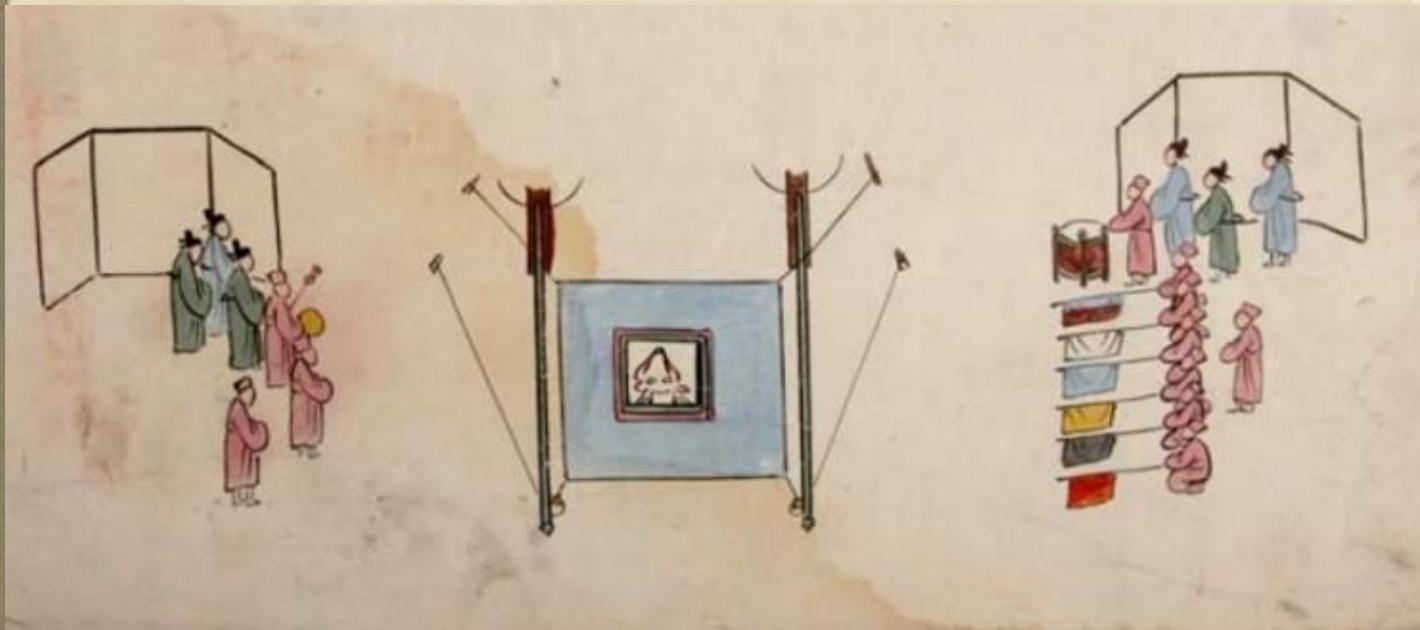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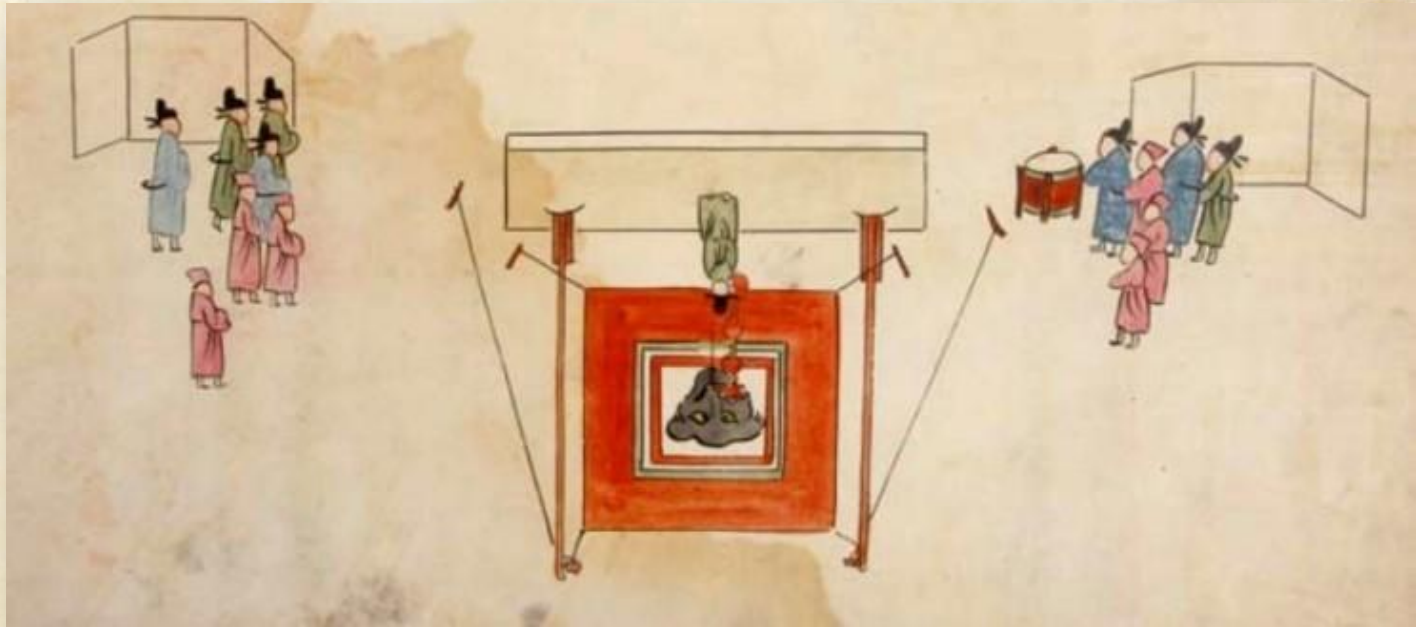
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드는 뜻으로, 자기가 저지른 일은
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이르는 말



왕과 함께하는 활쏘기
대사례 (大射禮)



영



신하